

광주서구청 전국종목별오픈펜싱 ‘금빛 썬더기’

여자에페 단체 부산시청 완파
올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
내달 전국체육대회 제페 기약
전남도청 역전 허용 3위 차지

광주시 서구청의 전국 최강 실력이 다시 한번 빛났다. 서구는 올 시즌 두 번째 전국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다음달 제 102회 전국체육대회를 기약했다.

서구는 15일 강원도 양구 청춘체육관에서 열린 2021 전국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선발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부산시청을 45-40으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올해 전국대회 단체전 우승은 지난 5월 제 59회 전국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이후 두 번째다. 지난 8월 제61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는 준우승을 했다.

서구는 베테랑인 최은숙(35), 강영미(36), 그리고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노선경(22), 노은솔(23)이 금빛 호흡을 맞췄다.

16강에서 경기 향남고를 상대로 45-34 가볍게 승리를 거둔 서구는 8강에서 경기도청을 45-39로 이겼다.

1라운드에서 최은숙이 5-0으로 기선을 제압했고 이어 강영미, 노선경이 기세를 이었다. 3라운드에서 14-14로 한차례 동점을 허용했지만 4라운드에서 최은숙이 18-15로 역전한 뒤 다시 리드를 내주지 않고 6점차 완승을 거뒀다.

4강 상대는 충북도청이었다. 서구는 4라운드까지 20-8로 앞서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강영미가 7점을 획득하며 45-26으로 대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부산시청과의 결승전도 서구가 압도했다. 최은숙과 강영미가 1, 2라운드에서 10-5로 리드를 잡은 뒤 노선경의 활약까지 더해지면서 9라운드에서 45-40 완승을 거뒀다.

서구는 올 시즌 전국대회 단체전에서 우승 2회, 준우승과 3위 각각 1회를 차지하며 전국 최강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구는 다음달 전국체전을 치른 뒤 실업연맹전과 국가대표선발전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 3위는 전남도청이 차지했다.

유진실, 김향은, 박소형, 유단우가 나선 전남도청은 16강에서 울산대에 45-33으로 승리한 뒤 8강에서 강원도청을 35-34로 이겼다. 8라운드에서 김향은이 나서 28-27 1점의 리드를 잡은 전남도청은 9라운드에서 유진실이 7득점하며 1점차 신승을 거뒀다.

4강에서는 부산시청에 겨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전남도청은 초반 리드를 뺏긴 뒤 4라운드에서 15-15 동률을 이뤘고 6라운드에서 유진실의 활약으로 23-22로 역전에 성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7라운드에서 역전을 허용하면서 34-38 4점차로 석패했다. /최진화 기자



광주시 서구는 15일 강원도 양구 청춘체육관에서 열린 2021 전국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선발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부산시청을 45-40으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광주서구청 제공



골밑슛 노리는 아셈 마레이

15일 오후 경북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1 M가세마을금고 KBL 컵대회 예선 창원LG와 서울SK 경기. LG 아셈 마레이가 골밑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배우고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광주FC 신인 공격수 엄지성
K리그 초대 영플레이어 선정
8월 5경기 슈팅 11개 맹활약

광주FC 신인 공격수 엄지성(19)이 K리그 초대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로 선정됐다.

15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신인들의 두드러진 활약을 조명하고자 K리그의 새로운 파트너 경남제약과 함께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지난달 신설했다.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는 K리그1 선수 중 ▲한국 국적 ▲만 23세 이하(1998년 이후 출생) ▲K리그 공식경기 첫 출장을 기록한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2019시즌 이후 데뷔) 선수 중에서 매달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돌아간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 중 해당 월에 소속팀의 총 경기시간 중 절반 이상을 출장한 선수를 후보군으로 하고, 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TSG(기술연구그룹) 위원들의 논의 및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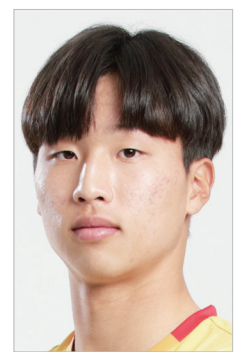
8월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를 두고 엄지성과 강현목, 김태환, 정상빈, 박대원(이상 수원), 김진성, 정한민(이상 서울), 이진용(대구) 등 총 8명의 선수가 후보군에 올랐다.

그리고 TSG 위원들의 투표 결과 엄지성이 초대 K리그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광주 U18(금호고) 출신 엄지성은 고등학교 졸업 후 올 시즌 프로로 직행했고,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다.

8월에는 5경기에 나와 슈팅 11개, 유효슈팅 4개 등 광주의 공격을 이끌었다. 특히 8월 20일 열린 26라운드 대구전에서는 시즌 3호골을 신고하며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는 엄지성의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최근 3승 1무의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초대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로 선정된 엄지성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전달된다. /최진화 기자



엄지성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호영 광주FC 감독은 “엄지성은 22세 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장점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체력과 경험적인 부분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팀에 알트란 같은 자원이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광주FC는 오는 18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홈경기를 갖는다. /최진화 기자

황선홍 감독 U-23 축구대표팀 사령탑

항저우AG·파리올림픽 지휘봉
내달 AFC 아시안컵 예선 출전

황선홍 전 대전하나시티즌 감독(53)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나설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황선홍 감독을 U-23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황 감독의 계약기간은 2024년 파리 올림픽 본선까지다. 다만 내년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중간 평가를 거쳐 계약 지속 여

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임 황 감독은 16일 오전 온라인을 통한 기자회견으로 U-23 대표팀 사령탑으로서 포부를 밝힐 계획이다. 김판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선임 과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김판곤 위원장은 “황선홍 감독이 오랜 프로 감독 생활을 통해 풍부한 지도 경험이 있다”라며 “K리그와 FA컵 우승을 두 차례씩 차지하는 등 합리적인 팀 운영과 젊은 선수 육성으로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황 감독은 현역 시절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황선홍

컴퓨터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4회 연속 월드컵 무대를 밟은 한국 축구의 ‘레전드 골잡이’다.

A매치 103경기에서 50골을 기록한 황 감독은 차범근(136경기 58골) 전 감독에 이어 한국 선수 역대 A매치 득점 2위다. 2003년 3월 현역 은퇴 이후 전남 드래곤즈 2군 코치를 시작으로 지도자의 길을 걸은 황 감독은 전남 수석코치를 거쳐 부산 아이파크, 포항 스틸러스, FC서울,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숫자로 입증된 박인비의 정교한 퍼트

3~4.5m 거리 성공률 무려 ‘64%’
최근 3시즌 남자 선수들 40~41%

‘컴퓨터 퍼트’로 불리는 박인비(33) 퍼트의 정교함이 숫자로 증명됐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15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서 “박인비가 그린에서 얼마나 놀라운 퍼팅을 하는지 정확히 계량화했다”며 데이터를 소개했다.

LPGA 투어는 지난 6월 열린 메디힐 챔피언십부터 선수들의 샷을 분석해 다양한 통계 자료를 수집했다. ‘KPMG 퍼포먼스 인사이

츠’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축적된 KPMG 퍼포먼스 인사이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LPGA 투어 선수들의 3~4.5m(10-15피트) 거리 퍼트 성공률은 28%로 측정됐다.

남자 골프에서 같은 거리 퍼트 성공률은 30% 정도로, LPGA 투어 선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3시즌 동안 남자 골프에서 이 부문 정상에 오른 선수들의 성공률은 40~41%로 더 높았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3~4.5m 거리 퍼트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는 라인



박인비

1라운드 18번 홀에서 약 30m(100피트)에 달하는 기적적인 버디 퍼트에 성공했다.

박인비는 이 퍼트를 번 효과를 냈다. 이는 이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 최고 기록이다. /연합뉴스